

# 청소년기 가족의 긍정적 관계향상에 관한 연구

전 종 미(금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사무국장)

이 은 지(금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교육문화팀장) · 장 진 경(숙명여자대학교 교수)

본 연구는 청소년기 부모자녀관계, 가족건강성을 고려하여 긍정적인 가족관계 강화를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여 건강한 가족생활을 영위해 가도록 돕고자 하는 목적이다. 청소년기 가족 간의 문제에 초점을 두는 것 보다는 긍정적인 자원을 도출하여 협력적인 해결을 격려하는 특성을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본 숲愛 가족愛 캠프는 부모와 자녀로 나누어 진행한 가족교육프로그램(4회기)과 가족구성원 모두가 함께 참여한 문화체험프로그램(4회기)으로 구성되었다. 가족교육프로그램은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성격을 띠며, 참여자의 행동 변화를 위한 계획 및 수행 과제를 제공하여 가족의 잠재력(강점)을 향상시키는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문화체험프로그램은 숲이라는 공간 안에서 가족 간의 협력을 통해 결속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숲愛 가족愛 캠프는 2008년 1월 25일부터 27일까지 2박3일의 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참여자는 12가족, 총 44명이었다. 이 중 아버지는 7명, 어머니는 12명이었고, 청소년자녀는 남학생 13명, 여학생 12명이었다. 학년별로는 초등학교 4~6학년 15명, 중학생 9명, 고등학생 1명이 참여하였다. 참여집단 내의 변화분석을 위하여 사전·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부모용 검사도구는 가족건강성척도와 부모효능감척도를, 청소년용 검사도구는 가족건강성척도를 사용하였다. 참여집단을 부모와 자녀로 나누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에게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가족건강성 척도는 모든 항목-가족유대감, 의사소통, 문제해결능력, 가치체계공유-의 점수가 사전 3.58, 사후 3.88로 0.3점 상승하였고, 부모효능감 척도는 사전 3.34, 사후 3.6으로 0.24점 상승을 보였다.

둘째, 청소년 자녀의 가족건강성 척도는 사전 3.62, 사후 3.87로 0.25점 상승하였다.

셋째, 참여가족들은 프로그램 내용 및 진행 전반에 대한 만족도 평가에서 가족관계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숲愛 가족愛 캠프는 나와 내 가족에게 도움이 되었다’ 문항은 가장 높은 점수(M=4.36)를 보였는데, 이것은 프로그램 참여 후 가족관계에 생긴 효과가 긍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개방형 질문에서는 본 캠프에 참여하기 전보다 가족간의 친밀감을 더욱 느끼고, 가족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정서)이 많아졌다고 답변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숲愛 가족愛 캠프가 청소년기가족의 가족건강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기 가족 간의 관계향상을 도출할 수 있는 적절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참여율을 높이는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